

2014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④	2	②	3	④	4	③	5	⑤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①	12	④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③
21	①	22	③	23	①	24	②	25	①
26	④	27	③	28	⑤	29	④	30	①
31	④	32	④	33	②	34	④	35	③
36	②	37	⑤	38	①	39	③	40	③
41	①	42	③	43	①	44	②	45	①

[화 법]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반대1'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효율성과 새로운 제도의 혜택이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특정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찬성1'은 첫 번째 발언에서 '학생자치법정 제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② '찬성1'은 첫 번째 발언에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찬성2'는 첫 번째 발언에서 지각을 한 학생의 예를 들어 제도 도입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⑤ '반대2'는 두 번째 발언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사회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자료>는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경중에 따라 각각 '선도위원회'와 '학생자치법정'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학생자치법정'에서 판결한 내용을 학생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사안을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료>를 찬성 측에서 활용한다면 '학생자치법정'이 사안들을 경중에 따라 기존 제도인 '선도위원회'와 분담할 수 있다는 효율성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대1'의 첫 번째 발언인, '학생자치법정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안 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① 사안을 중대한 사안과 경미한 사안으로 구분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감 함양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자료>를 통해 경미한 사안도 경우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것을 학생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커진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경미한 사안이라도 교육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점은, 자율성 함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대 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크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학생 선도 시 공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반대 측, 즉 상대방이 아닌 찬성 측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 문]

6. [출제의도] 개요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파악하기

작문 상황에서 제시된 예상 독자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므로 '건강검진 대상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II-1'은 개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일반 건강검진 서비스의 운영 현황 및 실태와 같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적절하다. ② 'II-3-다'에 '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마련'이 해결 및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문제점을 'II-2'의 하위 항목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II-2-다'는 문제점이 아닌 해결 및 개선 방안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II-3' 항목으로 옮긴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II-2'에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II-2-라'는 해결 및 개선 방안, 즉 'II-3'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II-3-라'는 문제점으로서 'II-2'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및 조건에 맞는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자료1-(가)'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자료1-(나)'를 통해 건강검진에 발병률이 높은 질병은 대체로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료2'를 통해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한 선택 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을 받는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과 건강검진을 할 때 개별 검진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자료들을 활용하여 'II-3-라'(건강검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마련)에 해당하는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므로 '발병률이 높은 질병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개별 검진자의 병력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건>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목적 또는 의도를 먼저 밝힌 후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①의 경우 앞서 언급한 내용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문장의 진술 역시 <조건>에 부합하므로 가장 적절하다.

①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참고할 때, '자영업자'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들을 모두 '소의 계층'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검진자의 병력이나 획일화된 검진항목은 일반적인 건강검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목적 또는 의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조건>에서 제시한 진술 형식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자료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글과 제시된 자료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조건>에서 제시한 문장 진술의 형식에 어긋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요약하기 전략의 적절성 평가하기

<보기1>에서는 교열의 일반적 정의, 교열 과정의 복잡함, 교열자에게 필요한 자질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시된 정보의 순서를 고려할 때 <보기2> 역시 <보기1>과 같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1>의 2문단에서 '예를 들어'로 시작되는 예시 내용은 <보기2>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2>의 2문단에서 '자기만의 다양한 거름장치'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풍부한 상식을 바탕으로 세운 기준'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1>의 마지막 문단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기2>에서는 삭제하였고, <보기1>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교열의 일반적 정의, 교열 과정의 복잡함, 교열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보기2>에서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2>의 마지막 문단은 <보기1>의 중심 내용을 포괄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문 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 규정 이해하기

'뉘도'는 제10항에 따라 [닉도]로 발음해야 하고, '뉘이'는 제14항에 따라 [닉씨]로 발음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뉘도'와 '뉘이'의 발음에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없을'을 [업술]로, '옴'을 [올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모두 제14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꽃을'을 [꼬출]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3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고, '않아'를 [안자]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4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값을' [갑]으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0항의 규정을, '값을' [갑술]로 발음해야 하는 것은 제14항의 규정을 따른 것이므로 적절하다.

12. [A형 15번과 동일]

13. [출제의도] 올바른 문장 표현 판단하기

①에 따르면, 수정 전 문장에서 '왜냐하면'에 호응하는 서술어는 '때문이다'이므로 '-는 것이다.'로 수정한 문장 역시 호응 관계가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①에 따르면, 수정 전 문장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②에 따르면, 수정 전 문장에서 필수 부사어 '이모와'가 필요하므로 적절하다. ④ ④에 따르면, 수정 전 문장의 '비록'을 '만약'으로 고쳐야 '임장이라'면과 호응을 이루므로 적절하다. ⑤ ⑤에 따르면, 수정 전 문장에서 '이미'와 '기존'이 의미상으로 중복된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준말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갓고'는 '가지고'에서 어간 '가지-'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만나 어간의 끝음절 모음인 'ㅣ'가 탈락하면서 준말이 만들어진 경우이므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준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갓고'는 '가지고'에서 어간의 끝음절 모음 'ㅣ'가 탈락하여 준말이 만들어졌으므로 적절하다. ② '디뎠'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간의 끝음절 모음인 'ㅣ'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었-'이 만나 '-었-'이 되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엇저녁'은 어근 '어제'와 어근 '저녁'이 만나 앞 어근인 '어제'의 끝음절인 '제'의 모음 'ㅣ'가 탈락하고 자음 'ㅈ'만 남아서 앞 음절 '어'의 받침으로 간 말이므로 적절하다. ⑤ '디뎠었다'를 준말로 만들 때, '뎠었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로 보아 적절하다.

15. [A형 12번과 동일]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시간 표현 탐구하기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서술어에 시제 관련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으면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현재 시제라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서술어에 ‘-다’의 형태를 사용하면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과거 시제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②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느’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현재 시제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④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면 과거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과거 시제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⑤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리’를 사용하면 미래 시제라는 내용으로 보아, ㉤이 미래 시제라고 한 것은 적절하다.

[생활독서]

[17] <출전> 홍길주 원저, 한경주 역주, 『수어연필(誼餘演筆)』

17. [출제의도] 독서의 방법 적용하기

제시된 ‘수어연필’의 마지막 문단에서, 학문과 지식의 힘을 깊게 하려면, 책의 내용에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나중에 다시 읽어 보는 과정을 반복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인문]

[18~20] <출전> 이정우, 『사건의 철학』

18. [출제의도] 글의 정보 파악하기

‘들뢰즈에 따르면 자연 현상들은 인간에 의한 규정을 통해서 존재한다.’라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① 1문단의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언어와 그 의미 등 인위성이 개입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현상이 아니라 언어와 그 의미 등 인위성이 개입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이것이 인간과 다른 자연물들의 결정적인 차이이다.’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사건’이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의 변화와 생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고, 들뢰즈는 이를 ‘의미’라고 지칭한다.’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하지만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로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 들뢰즈는, 일반적인 의미 이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중심 개념 적용하기

2문단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시 이론은, 언어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주체가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로 보아 현시 이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의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시 이론에 따르면, 의미는 언어 기호가 특정 대상을 지시할 때 성립한다.’로 보아 지시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시 이론은, 언어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주체가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로 보아 현시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호작용 이론은 언어 기호들의 구조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언어 기호들의 구조, 즉 문법적 체계가 언어 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이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규정된다.’로 보아 기호작용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들뢰즈는 이 ‘의미’ 그 자체는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문화적 장(場)’이 ‘의미’ 규정의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문화적 장’이란 정치, 역사, 예법 등 인간의 삶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데, ‘사건’으로서의 규정되지 않은 ‘의미’는 이 ‘문화적 장’에 편입될 때 비로소 규정된 ‘의미’가 된다.’로 보아 들뢰즈의 의미 이론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중심 개념과 다른 개념 비교하기

3문단의 ‘들뢰즈의 의미 이론에서 ‘의미’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앞의 세 이론들은 의미를 문화의 차원을 중심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들뢰즈는 자연과 문화의 차원을 포괄하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와 <보기>의 ‘언어 기호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나게 하고’로 보아 소쉬르가 간과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의 ‘들뢰즈가 말하는 ‘사건’이란, 인간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연의 변화와 생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이고, 들뢰즈는 이를 ‘의미’라고 지칭한다.’와 <보기>의 ‘소쉬르는 언어가 외부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로 보아 들뢰즈에게 언어 기호와 ‘사건’은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자연과 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와 생성을 전제로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탐구한 들뢰즈는, 일반적인 의미 이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의미의 개념을 규정한다.’와 <보기>의 ‘소쉬르는 언어가 외부 세계를 참조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로 보아 소쉬르는 언어 기호 발생 이전의 자연의 변화와 생성을 중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현상학을 바탕으로 하는 현시 이론은, 언어를 표현하거나 수용하는 주체가 언어 기호의 지시 대상을 통해 주관적으로 뜻을 만들어내는데, 이를 의미라고 규정한다.’와 <보기>의 ‘언어 기호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나게 하고’로 보아 소쉬르는 언어 기호의 형식적 차이를 중시하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기호작용 이론은 언어 기호들의 구조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고 본다. 언어 기호들의 구조, 즉 문법적 체계가 언어 표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이 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규정된다.’와 <보기>의 ‘언어 기호의 형식적 차이가 언어의 의미를 생겨나게 하고’로 보아 소쉬르는 언어 기호의 문법적 체계를 중시하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술]

[21~23] <출전> 전혜숙, 『20세기 말의 미술』

21.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발테사리의 작품 세계의 특징을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 등으로 구분하여 시기별 특징을 파악한 글이기 때문에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발테사리의 작품인 ‘WRONG’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것은 적절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대상과 관련된 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자료 해석의 적절성 파악하기

5문단에서 ‘익명성’은 ‘얼굴을 각각 원색의 동그라미로 가려진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익명성을 캡션과 같은 텍스트와 연결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4문단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하나의 문장으로 읽히도록 배열’하여 ‘문장들을 이미지로 시각화한 것’이라는 예로 ‘소년, 사과, 소녀’의 경우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일부인이 제거된 사진들은 그만큼의 정보가 제거되었다’는 문장과, 6문단에서 ‘발테사리에게 모든 것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우연적인 효과였다.’는 것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일부인이 제거된 사진들은 그만큼의 정보가 제거됨’이라는 문장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가)는 4문단에서 텍스트 없이 사진만으로 만든 작품에 해당하는 사례로 작가의 의도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고, (나)는 얼굴이 동그라미로 가려져 있는 작품으로 5문단에서 설명한 ‘일부인이 제거된 사진들은 그만큼의 정보가 제거됨으로써 모호함’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6문단에서 ‘이로 인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던 감상자가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으로 보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6문단에서 ‘그의 작품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모호한 의미’로 드러나고, 이로 인해 ‘감상자가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것과 연결해 보았을 때, 공백을 작품 해석의 모호함으로 본 것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사회]

24. [A형 21번과 동일]

25. [A형 22번과 동일]

26. [A형 23번과 동일]

27. [A형 24번과 동일]

[과학]

[28~30] <출전> 이정구 외, 『어지러움』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우리 몸의 평형 상태 여부를 감지하는 원리를 귀의 평형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① 다양한 감각기관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인체 평형기관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차 감각기관의 구성 물질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운동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세부정보 파악하기

<보기>의 ㉔는 운동섭모, ㉕는 부동섭모, ㉖는 단백질 다리, ㉗는 신경전달물질, ㉘는 1차 감각뉴런이다. 5문단의 '단백질 다리가 뿔뿔해지면 이온채널이 10% 이상 열리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한다.'는 내용과, 6문단의 '탈분극이 발생하면 1차 감각 뉴런으로 분비되는 전달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신경 전달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뇌로 전달되는 전기신호의 발생빈도도 달라지게 된다.'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은 단백질 다리가 뿔뿔해진 후에 발생하는 과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의 '운동섭모와 부동섭모들이 운동섭모의 방향으로 휘어지고'와 '이러한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한다.'로 보아 적절하다. ② 6문단의 '탈분극이 발생하면 1차 감각뉴런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과분극이 발생하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경 전달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뇌로 전달되는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도 달라지게 된다.'로 보아 적절하다. ③ 5문단의 '단백질 다리가 느슨해지면 이온채널이 닫히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한다.'와 6문단의 '탈분극이 발생하면 1차 감각뉴런으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늘어나고, 과분극이 발생하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신경전달물질의 양에 비례하여 뇌로 전달되는 전기신호의 발생 빈도도 달라진다.'로 보아 적절하다. ④ 5문단의 '이온채널은 약 10%정도 열려 있는데 이를 분극상태라고 한다. 이때 일정량의 신경전달물질이 1차 감각뉴런에 전달되어 일정한 간격의 전기신호를 뇌로 송출하고 우리 뇌는 이것을 평형 상태로 인지한다.'로 보아 적절하다.

30.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설명된 사례는 회전을 하다가 정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3문단의 '측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처럼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한다.'와 '가령 제자리에서 한 방향으로 돌면 측반고리관 속 림프액의 움직임이 가장 크며, 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림프액의 움직임은 잠시 동안 지속된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전시가]

[31~33] <출전> 작자미상, 「상사별곡(相思別曲)」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A]에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대상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고 있지도 않다.

① '무정하여 그러는가 유정하여 이러한가' 등과 같이 앞뒤 구절을 맞대응시키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는고'에서 '인생'을 '이슬'로 비유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에서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이라는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임파의 계획을 소망하고 있다. ④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의역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날개 돌린 학이 되어 날아서 아니 가랴'에서 '학'은 과거 화자의 모습을 동일시한 대상이 아니라, 화자가 임에게 가고 싶은 마음을 투영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조물(造物)이 새우는지 귀신이 휘짓는지'에서 화자는 '조물'이 시샘하고, '귀신'이 방해하여 자신이 고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외부 요인인 '조물'과 '귀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② '오늘이나 들어올까 내일이나 기별 올까'에서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임을 직접 찾아 나서려는 적극성은 보이지 않으며, 임과 임의 '기별'을 기다리고만 있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교태겨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이 더욱 싫다'에서 '교태겨워 웃던 웃음'은 과거에 임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의 일이다. 화자는 이런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며 '싫다(서럽다)'라는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다. ④ '날 사랑하든 끝에 남 사랑하시는가'에서 화자는 자신을 사랑하던 임이 '남'과 같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며,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기능 파악하기

㉚은 '가을밤에 떠 있는 밝은 달'로서, '임 생각이 세로 난다'를 통해 화자로 하여금 이별한 임을 떠올리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함을 알 수 있다. ㉛은 '가을 밤에 내리는 비'로, '밝은 어이 더디 가고'를 통해 임의 부재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㉚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기능을, ㉛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고전소설]

[34~37] <출전> 작자미상, 「정진사전」

34. [출제의도] 서사의 흐름 이해하기

'일지'로부터 편지의 내용을 들은 '정진사'는 '최씨'를 내당으로 불러 옥지환이 없어진 일에 대해 크게 꾸짖고 있으나, 편지 혹은 옥지환 등 어떤 물건을 건네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일지'는 상서가 청나라로 떠난 후, '차돌'을 불러 '최씨를 없앨 계교를 생각하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춘란'은 '일지'의 지시로 최씨의 방에서 상자를 뒤져 옥지환을 가져왔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정진사'는 외당으로 향하던 중 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일지'와 만나 편지의 사연을 듣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금련'은 내당에서 '정진사'가 '최부인'을 꾸짖고 있는 일을 별당의 '박씨'에게 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5. [출제의도] 의역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박씨'가 '최씨'의 처지를 동정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 그녀가 선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현재 모함을 받고 있는 인물은 '박씨'가 아닌 '최씨'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① '최씨'의 필적을 모방하여 거짓된 내용의 편지를 쓰고, 일부터 '정진사'의 눈에 띄어 편지를 전하려는 '일지'의 행위는 모두 '최씨'를 모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② '최씨'와 '강한량'의 관계를 여러 차례 목격했다는 '일지'의 거짓말은 '정진사'를 더욱 분노하게 하여 '정진사'와 '최씨'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일지'의 계략에 의해 모함을 받은 '최씨'는 그 모든 것이 '일지'의 소행이라고 추측하지만 진실을 규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일지'의 계략에 속아 '최씨'를 오해하여 크게 화가 난 '정진사'에게 '일지'는 또 다른 계략을 꾸며 '정진사'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일지'는 '춘란'을 시켜 '최씨'의 옥지환을 훔치게 하였으며 이를 편지에 동봉해 두었으므로 옥지환과 편지는 '정진사'에게 있다. 그런데, '정진사'는 거짓 편지를 읽은 후 '최씨'에게 옥지환의 행방을 묻고, 최씨가 옥지환을 찾지 못하자 '굳은 마음을 알라 하는 옥지환이 어찌 온전하게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최씨'를 꾸짖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옥지환'은 '정진사'가 '최씨'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이 이해하기

'표리부동(表裏不同)'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로서, '일지'는 내심에 상서가 부증을 떠남을 다행하여 겨우 근근히 기뻐하나, 겉으로는 가장 결연함을 일컫는다.'라는 부분을 참고할 때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①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뜻으로,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맞지 않으면 싫어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유유상종(類類相從)'은 '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려 사귈.'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음참마속(泣斬馬謖)'은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릴.'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주마간산(走馬看山)'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 보고 지나감.'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38~40] <출전> 율동주, 「사랑스런 추억」,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38. [출제의도] 표현 방식 및 효과 이해하기

(가)에는 과거에서 현재, '봄이 오면'에서 '봄은 다 가고' 등의 시간 변화가 드러나 있고, (나)에는 '햇볕'에서 '해질녘'으로의 시간 변화가 드러나 있으므로, (가)와 (나) 모두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서늘', '동경' 등의 구체적인 지명이 활용되고 있지만, (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에는 '울음이 타는'과 같이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출제의도] 표현론적 관점으로 감상하기

'비둘기'는 과거 속 화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대비되는 자연물로, 과거와 현재를 직접적으로 매개하거나 현실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심화와 관련되기보다는 과거의 부끄럽고 힘겨웠던 모습을 부각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①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를 통해 희망과 꿈을 품고 있음,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이 트리고'를 통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모든 행위가 과거 속 공간인 '정거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화자는 과거 '서늘'의 '플랫폼에서 간신히 그림자를 날리며' '담배'를 피우고 있으므로, '간신히'의 의미에 주목할 때 '담배'가 과거의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화자의 시름이나 고민 등을 드러내는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햇 거리에 남은 나'는, 현재 부끄럽게 살고 있는 화자가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때의 '나'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대비되는, 꿈을 잃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젊음'은, 현재의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

상이자 '희망과 사랑'을 간직했던 과거 속 자신의 모습이므로, '젊음'이 화자가 소망하는 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구조론적 관점에서 감상하기

'햇볕'에서 '해질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햇볕'만으로는 흐름의 이미지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또한 <보기>의 '흐름'은 주로 '강물'과 같은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움의 보편성 역시 '강물'과 인간 삶의 대응을 고려할 때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1연에서 화자의 서러운 감정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1연에서 보인 '눈물'이 2연에서는 '울음'으로 이어짐을 통해 화자의 슬픔이 점차 고조되어 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산골 물소리'가 강물이 시작되는 것을, '소리 죽은 가을 강'이 '바다에 다 와 가는' 강물의 하류를 각각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골 물소리'가 '기쁜 첫사랑'과 대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물의 흐름은 인간 삶의 과정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이라는 구절을 '가을 강'이 이제 '바다'에 다다를 '일'만 남았다고 해석했다면 이는 소멸의 이미지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삶의 과정과 관련짓는다면 죽음을 앞둔 노년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보기>에서 언급한 인간 삶의 유한함이나 그에 따른 허무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현대소설]

41. [A형 37번과 동일]

42. [A형 38번과 동일]

43. [A형 39번과 동일]

[희곡]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